

◎ 김부식, 『삼국사기』, 신라본기 7~12 (이재호 옮김, 『삼국사기 1』 (서울: 솔, 2006)

I. 배경 (신형식,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경인문화사, 2011) 참조)

1. 삼국사기

고려 인종 23년(1145) 김부식이 왕명을 받들어 엮은 책. 기원전 57년~서기 936년까지의 기전체(紀傳體) 정사. 사마천 『사기』의 체제에 의거하면, ‘본기本紀’란 천자의 사적을 기술한 편명에만 사용되며, 제후의 사적을 기술한 편명은 ‘세가世家’라고 함. 우리나라 왕의 기록을 ‘본기’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 현전 최고(最古)의 역사 문헌.

2. 원사료(추정)

우리나라 문헌: (엮은이 미상 『구삼국사』, 『삼한고기』, 『해동고기』, 『신라고기』, 『신라고사』, 김대문의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악본』, 『한산기』, 최치원의 『제왕연대력』과 문집)

중국 사서: 『삼국지』, 『후한서』, 『진표서』, 『위서』, 『송서』, 『양서』, 『남사』, 『북사』, 『수서』, 『신.구당서』, 『통전』, 『책부원귀』

3. 편찬동기와 목적

“지금 학사대부들은 모두 오경(五經), 제자지서(諸子之書), 진한사서(秦漢史書)에는 널리 능통하지만, 우리나라 사실은 망연하여 그 시말을 모르고 있으니 심히 가슴아픈 일이다. 더구나 신라, 고구려, 백제가 3국을 세우고 서로 정립(鼎立)하여 예(禮)로서 중국과 통한 바 있어 『漢書』(=>후한서)나 『당서(唐書)』에 모두 열전에 기록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중국)의 것은 자세하나 국외(=>3국)의 것은 간략하게 써 놓았으므로 실리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 김부식, ‘진삼국사표(進三國史表)

4. 후대의 평가

(1) 부정적 평가

- 권근(1352-1409)(『진삼국사략전』, 『삼국사략서』), 윤희(1380-1436)(『의청간행동국사략전』), 이극돈(1435-1503)(『동국통감』서문) 등 조선 전기 사가들은 『삼국사기』의 체제나 어구 및 사론(史論)이 중국 정통사학=춘추필법의 예에서 벗어났다고 비판. 방언, 속어, 불경(不經)의 표현들. 안정복, 정약용 등 조선 후기 사가들은 광범한 자료수집과 이용이 부족했음을 지적

- 신채호: 삼국사기 기록이 소루한 것은 사료의 부족이 아니라 김부식이 사대주의 사관 때문. 부여와 발해를 제거한 점, 고구려 영토를 한강 이남으로 옮긴 점, 신라의 평양주를 삭제하여 북방영토를 외국에 할양한 점, 당에 동화한 최치원을 숭배한 점, 당에 투항한 흑치상지를 내세운 점 등 비판 “선학들이 말하되, 삼국의 문헌이 모두 병화(兵火)에 없어져 김부식이 고거할 사료가 부족하므로 그의 편찬한 사기가 그렇게 소루함이라 하나, 기실은 역사의 병화보다 김부식의 사대주의가 사료를 분별한 것.” “조선의 강토를 바짝 줄이어 대동강 혹은

한강을 국경으로 정하는 한편 사대적 유교적인 입장의 사료는 부연찬탄 개작하고 그에 불합한 사료는 논평도개 혹은 산제刪除하였다.”(『조선역사상일천년래제일대사건』) 단재의 입장에서 김춘추는 외족을 끌어들이며 동족을 멸망시킨 대적인.(『독사신론』)

-최남선: “지나사상과 한문적 기습氣躡으로 국고國故의 원형을 왜뉴歪扭하고 개환한 결과, 유교적으로 보아 괴난한 것은 말살하기를 꺼리지 않았고 한학漢學상으로 비야한 것은 변개”(『삼국사유사해제』, 1918)

-일제시대 일본인 식민사가들: 중국문헌의 기계적인 전재, 내물왕 이전 上代의 기록은 신빙성 없는 날조, 유교적 입장의 강조, 신라 제일주의, 고려왕실과 신라왕실과의 관계 명시

-김철준: 모방적이고 사대적인 유교사관에 입각한 결과 자기 전통문화의 빈곤화, 축소화, 외교관계기사의 풍부함도 사대주의의 합리화에 불과 (“고려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한국사연구 9, 1975)

## (2) 긍정적 평가

-고병익: 삼국의 기사를 본기로 배당해서 3국을 동등한 격에 놓고 있고, 3국의 기사를 본기로 명명한 것도 만약 김부식이 정말 중국중심 사대사고가 골수에 박힌 사람이라면 하지 못했을 일. (“삼국사기에 있어서의 역사서술”,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이기백: 삼국사기는 도덕적 합리주의사관. 『삼국유사』 오히려 현대 역사학에 가까움.(“삼국사기론”, 문학과 지성 26, 1976)

-신형식: 중국문헌을 전재했고 편찬당시에 수정이 있었다고 해도 일단 현전 유일의 상고대 기록으로서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 인정. 자기 나라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려는 국가의식이 강조되어 있음(신형식, “신라사의 시대구분”, 한국사연구 18, 1977)

-정구복: 유학적이면서도 인간중심의 역사의식 (“김부식과 삼국사기”, 『한국중세사학사』 I, 집문당, 1999)

-이강래: 통일전쟁 이후 일통삼한의식 강조. 유교적 세계관 및 덕목이 두드러짐. 고려왕조의 위기에 대한 대안.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5/ 『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2000)

## II. 외교관계 기사에 대한 전반적 고찰

### 1. 당 이전 3국과 중국의 교섭

#### (1) 순서

-고구려는 32년 중국측과 교섭, 대무신왕이 광무제에게 조공, 왕호를 받음.

-백제의 경우, 372년 근초고왕 때 동진(東晉)에 방물을 바치고, 태수로 봉해짐.

-신라는 381년 내물왕 때 전진(前秦)에 사신 파견, 방물을 바침. 책봉 없음 (cf. 중국측 『晉書』 권69, 열전67, 四夷에 따르면 280, 281년에 신라=진한이 진에 조공한 사실 기록) 지리적

격리성으로 가장 늦게 외교적 교섭 나타났으며, 파견횟수도 빈약. 전진과의 교섭 이후 단 1회 양(梁)에 조공. 521년(법흥왕)까지 조공이 없었음. 중국보다 왜와의 교섭이 활발. 564년 진흥왕 진(陳)에 견사+책봉, 566년 이후 연년조공. 백제보다 앞서 상시적인 조공관계 수립. (6세기 이후 급성장한 신라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필요)

(2) 고구려: 대무신왕 이후 대당교섭 시작된 619년(영류왕2)까지 600여년간 16왕조에 178회의 송사. 위, 연, 수 등과의 충돌기 제외하면 가장 빈번한 횡수. 왕성한 외교적 진출이 진출이 남조, 북조와 모두 이루어졌음

〈표 55〉 삼국의 대중국관계

중국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
후한後漢			5	
위魏			3	
오			1	
전진		1	3	
동진			3	7
진		9	7	2
연			11	
후조			1	
량		2	11	7
북제		3	3	3
남제南齊			3	
후위後魏			89	1
동위東魏			13	
송宋			3	4
주周			1	
후주後周				2
수隋		12	21	12
계		27	178	38

(3) 백제: 송, 양, 동진, 진 등 남조와 관련이 깊음. 파견 회수나 교섭은 고구려에 비해 열세나, 외교적 진출이 고구려의 압력에 대항하는 구국의 길로 모색. 왜와의 교섭과 병행해서 대중국접촉을 유지했기 때문에, 수, 진과의 외교에서도 소극적. 연례적인 조공제 확립 못 하였고, 진과의 교섭에서도 신라에 뒤짐.

(4) 신라: 백제와 마찬가지로 남조와 교섭. 지리적 격리성, 왜와의 불화, 사회적 후진성으로 인해 가장 늦게 교섭 시작. 그러나 진흥왕 25년 이후 진(陳)과의 교섭은 외교적 낙후성 극복하는 전환점, 백제를 능가. 6세기 중엽 이후 진, 수에 대한 3국의 대중조공은 3국이 비등한 빈도를 보이며, 대당교섭 이후는 신라가 주도권 잡게 됨

(5) 이 시기 특징: 장수왕은 북위, 진, 전연, 송, 남제 등 5개국과 조공관계 & 각국으로부터 동일한 책봉. 백제 위덕왕 역시 후주, 북제, 수 등과 관계. 진흥왕도 양, 북제, 진과 외교관계 수립. 중복되고 비배타적인 조공으로부터 양국이 정치적 종속관계 아니라 평등하고 예의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음.

(6) 당 이전의 책봉

〈표 56〉 고구려의 冊封王號 일람

책봉왕호	왕	연대
1. 征東大將軍營州刺史	고국원왕	35년(355)- 燕, 慕容皝
2. 高句麗王 樂浪郡公	장수왕	1년(413)- 晉, 安帝
3. 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장수왕	23년(434)- 魏, 世祖
4.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	장수왕	51년(463)- 宋, 世祖
5. 驃騎大將軍	장수왕	68년(480)- 南齊, 太祖
6. 使持節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문자왕	1년(492)- 魏, 孝文帝
7.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征東大將軍樂浪公	문자왕	3년(494)- 齊
8. 車騎大將軍	문자왕	11년(502)- 梁, 高祖
9. 寧東將軍都督營平二州諸軍事高句麗王	안장왕	2년(520)- 梁, 高祖
10. 安東將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안장왕	2년(520)- 魏
11. 使持節散騎常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안원왕	2년(532)- 魏
12. 使持節侍中驃騎大將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양원왕	6년(550)- 北齊
13. 使持節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句麗王	평원왕	2년(560)- 北齊, 廢帝
14. 寧東將軍	평원왕	4년(562)- 陳, 文帝
15. 開府儀同三司大將軍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평원왕	19년(577)- 周, 高祖
16. 大將軍遼東郡公	평원왕	23년(581)- 隋, 高祖
17. 上開府儀同三司	영양왕	1년(590)- 隋, 文帝

a. 고구려: 중국의 여러 왕조가 거의 동일하게 책봉=장수왕은 북제.진.송.남제로부터, 평원왕은 북제.주.진.수로부터 각각 책봉을 받고 있어서 정치적 구속력 갖는 승인이 아닌 예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음. 대개 요동군공(遼東郡公). (백제에는 대방군공, 신라에는 낙랑군공).

〈표 57〉 백제의 책봉왕호冊封王號 일람

책봉왕호	왕	연대
1.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鐵東將軍百濟王	전지왕	12년(416)- 東晉, 安帝
2.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	무령왕	21년(521)- 梁, 高祖
3. 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성왕	2년(524) -梁, 高祖
4. 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	위덕왕	17년(570)- 北齊, 後主
5. 使持節都督東青州諸軍事東青州刺史	위덕왕	18년(571)- 北齊, 後主
6. 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	위덕왕	28년(581)- 隋, 文帝

b. 백제: 고구려에 비해 책봉횟수 적음. 수의 경우, 백제와 고구려 모두와 관계를 맺었지만 왕이라는 칭호는 주지 않았다.

〈표 58〉 신라의 책봉왕호冊封王號 일람

책봉왕호	왕	연대
1.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진흥왕	26년(565)- 北齊, 武成帝
2.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진평왕	16년(594)- 隋

c. 신라: 백제보다 외교적 교류 빈약, 책봉기사도 희박. 백제, 고구려와 같은 지역적인 칭호를 받았지만, 장군이라는 책명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와 달리 수로부터 왕호를 받고 있음=>수 이래 발전되어 가는 신라외교

(7) 견사(遣使) 조공의 목적

- 3국측: 책봉, 진하(進賀), 사은, 인질, 구법사(求法使), 청병, 사죄
- 중국측: 책봉, 회사(回賜), 조위(弔慰), 책망

2.삼국과 당의 교섭

(1) 수당교체: 여-수전쟁 이후 고구려의 대당교섭은 양국의 대립완화를 위한 노력에서 출발, 신라는 수 이래 국력의 성장과 더불어 대중국교섭 강화.

- 고구려 영류왕 2년(619)에 처음으로 당에 입조, 전례와 달리 책봉 없음. 양국의 대립상 짐작하게 함. 포로교환함으로써 긴장 완화, 동왕 7년(624)에 책봉.
- 백제는 고구려보다 3년 늦게 무왕 23년(621)에 대당조공 시작, 동왕 25년(624년)에 고구려와 같이 책봉.
- 신라는 진평왕 43년(621)에 조공, 46년(624)에 책봉.
- 당은 최초 입조시 각국에 책봉하는 대신, 3국을 같은 해에 책봉=> 3국에 대한 견제

619년 대당교섭 시작 이래 고구려 멸망하는 668년까지 50년간 이루어진 3국과 당의 조공회수 일람표

〈표 64〉 통일전 삼국의 대당조공

삼국	왕	회수	계
고구려	영류왕榮留王(24년간)	15	25
	보장왕寶藏王(27년간)	10	
백제	무왕武王(21년간)	15	22
	의자왕義慈王(20년간)	7	
신라	진평왕眞平王(12년간)	8	34
	선덕왕善德王(16년간)	10	
	진덕왕眞德王(8년간)	9	
	무열왕武烈王(8년간)	5	
	문무왕文武王(8년간)	2	

(2)견사의 목적

- 조공, 고애(告哀), 진하, 사은, 문화청구, 사죄
- 숙위(宿衛): 신라에 의해서 적극적인 친당책으로 인질+조공+문화적 표현, 진덕왕2년(648) 시

작성 이래 대당교섭의 중핵체, 양국의 교량인. cf. 인질: 고국원왕과 전연(前燕)과의 사이에서 보여졌다가 후에 소멸, 북방민족의 강압적인 대외정책에 의한 것.

- 청병: 수대에는 백제와 신라 양국이 거의 동시에 고구려정벌을 수에 요구. 그러나 대당교섭은 신라에 의해 독점, 청병사 또한 거의 신라측에서 발견됨 (통일전 48회의 건사 중 6차의 청병사 파견)

〈표 68〉 신라의 대당조공사對唐朝貢使 일람표

왕명(재위)	회수	遣唐使 人名	종류
진평왕(12)	8	人名不傳	淸兵
선덕여왕(16)	10	인명부전	求法·청병·國學입학
진덕왕(8)	9	邯峽許 金春秋[金文王] 金法敏[金仁問]	청병·숙위
무열왕(8)	5	金天福[金文王][金仁問]	청병·전승보고·숙위
문무왕(11)	11	[김인문][金三光][金漢林 汁恒世 元器 淵淨土 祇珍山 金欽純 良圖 金福漢 金原川 金邊山][金德福] 金眞珠	청병·사죄·숙위·숙위 학생·曆術
신문왕(12)	1	인명부전	禮記文章 요구
효소왕(11)	1	인명부전	
성덕왕(36)	43	金思讓 金貞宗[金守忠] 朴祐 金楓厚 金仁壹 金武勳 金忠臣 金新質 [金嗣宗][金志滿] 金志良 [金思讓] [金志廉][金忠信] 金端竭丹 金義忠 金榮 金相 金抱質	숙위·賀正·正副使
효성왕(6)	2	金元玄	
경덕왕(24)	11	王弟(失名)	하정
해공왕(6)	10	金隱居 金標石	하정·사은

선덕왕(6)	1	인명부전	
원성왕(14)	2	金元全	
소성왕(2)	2	인명부전	
애장왕(10)	5	梁悅[金憲忠] 金力奇 金陸珍	숙위·숙위학생
현덕왕(18)	7	金昌南[金士信] 金張廉 金憲章 金柱彌[金昕] 金允夫 金立之 朴容之 崔利貞 金叔貞 朴季業	숙위·숙위학생
흥덕왕(11)	7	僧丘德 大廉 金能儒[金義琮]	사은·茶전래
희강왕(3)	1	金忠信	숙위
민애왕(2)			
신무왕(1)	1	인명부전	노예進貢
문성왕(19)	2	金雲卿 元弘	
현안왕(5)			
경문왕(15)	3	金富良 金胤 李同[金因]	숙위·숙위학생

현강왕(12)	2	인명부전	
정강왕(2)			
진성왕(11)	1	金處誨	
효공왕(16)	1	金文蔚	
신덕왕(6)			
경명왕(8)	3	金樂 金幼卿 金岳(後唐)	
경애왕(4)	1	張芬 朴術洪 李忠式(후당)	
경순왕(5)	1	金暉 李儻(후당)	
621~935 (315)	150	[ ]는 宿衛	

### III. 신라본기 7-12

#### 1. 신라본기 제 7: 문무왕 하

##### ◆ 나당전쟁의 원인

671년 7월 26일 당나라 행군총관 설인귀의 글:

- 무열왕대 당 태종의 나당연합 파병원조 원인이 이익이 아니라 명분에 있었음. “蒼島의 땅으로 말미암아 黃圖의 군사를 일으켰으니, 이익됨은 적었고 쓸데없는 것만 탐내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쳐야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만, 선군예의 신의를 잃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 양국간 도리를 다함으로써 평화공존 주장. “중국과 신라가 서로 변하지 말고 서로 도와 병기를 녹여 없애고 공평무사한 마음을 심정으로 삼는다면, 자연히 후손에게 계책” “왕은 책명을 차례로 입어서 신하를 일컫게 되었는데”
- 고구려 유민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고, 조공 게을리하며 대당 대립각 세운 문무왕 책망: “역적의 괴수”, “왕은 이(고구려의 안승)에 의뢰하여 밖의 원조로 삼으니”, “왕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문안하지도 않고”

대왕의 답서:

- 당 태종은 나당연합전쟁에서 평양 이남과 백제의 토지를 모두 신라에 줄 것을 약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양도호부, 웅진도독부 설치, 중국병사 1만명 4년간 체류. 보급 책임지는 신라에 막대한 부담.
- 대고구려 연합전쟁에서 신라의 공을 인정하지 않음
- 원하지 않는 백제와의 화친 강요(664), 백제의 유민들에게 옛땅을 모두 돌려주라고 함
- 신라의 백성들은 모두 본래의 소망을 잃고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에 깊은 원한이 맺힌 사이인데 이제 백제의 형편과 상황을 보건대, 별도로 하나의 나라를 스스로 세울 것 같으니, 백년 후에는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신라는 이미 중국의 한 고을이 되었으므로(新羅既是國家之州) 두 개의 나라로 나눌 수 없으니, 중국과 신라가 한집안이 되어서 길이 뒷걱정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 추이

- 673~675: 당나라 군사가 말갈, 거란 군사와 협공

- 당 고종 조서로써 왕의 관직과 작위 빼앗고, 숙위였던 왕의 아우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임명
- 문무왕은 고구려 유민 통합, 백제의 땅 빼앗고 고구려 남쪽 경계까지 영토 확장. 축성, 9군 설치, 당과 전쟁하는+동시에 당에 입공&사죄(관직 회복)
- 679: 탐라국 경략/ 680: 후고구려 보덕왕 안승에게 누이동생 시집보냄, 가야에 금관소경(金官小京) 설치

## 2. 신라본기 제 8

### (1) 신문왕

- 681년, 당 고종 책립(遣使冊立爲新羅王).
- 683년, 옛 백제지역인 금마저(익산)에 거주하던 후고구려 보덕왕 안승을 경주로 불러들여 관등, 김씨의 성씨, 토지를 내리고 돌려보내지 않음.
- 684년 안승의 조카 대문 장군 금마저에서 모반, 참형
- 686년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예기』 등 서적을 청함
- 692년 당 중종 사신을 보내, 당태종의 묘호와 김춘추의 묘호가 같으니 고치라고 함. 듣지 않음.

### (2) 효소왕

- 692년 당나라 측천무후가 조위 책봉
- 698년 일본국 사신이 와서 송례전에서 불러봄

### (3) 성덕왕

- 당나라 측천무후가 조위 책봉
- 703년 정월 입당공방물(入唐貢方物). 일본국 사신 204명이 옴
- 705년 3월, 9월 견사여당헌방물(遣使與唐獻方物)
- 706년 4월, 10월 입당공방물
- 707년 12월/ 709년 6월/ 710년 정월/ 711년12월 입당공방물
- 712년 2월 입당조공(入唐朝貢)/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칙명으로 당 현종과 같다는 이유로 성덕왕의 이름 고치게 함
- 713년 2월: 입당조공==> 현종은 누문에 나와서 이를 접견==>책왕
- 714년: 왕자 김수충 당나라 숙위==>현종은 집과 비단을 내려 사랑, 조정에서 연회/ 윤2월 견사하례/ 10월 당 현종 우리 사신에게 내전에서 연회 베풀어줌. 재상과 4품 이상 관원에게 참여 명령 :성덕왕-현종 대 나당 관계 매우 돈독
- 715년 3월/ 716년 3월/ 718년 6월/ 719년 정월 입당조공
- 718년 한산주도독 관할구역(평안남도, 황해도)에 여러 성 축성, 722년 일본 도적질 막기 위해 모별군성(경상북도 월성군) 쌓음
- 723년 3월 당나라에 견사 미녀 두 명을 바침, 현종은 물품을 후히 주어 돌려보냄/ 4월 견사 & “과하마 한 필, 우황, 인삼, 아름다운 다리, 조하주, 어아주, 누옹령, 바다표범의 가죽, 금, 은 등을 바침”
- 724년 2월 견당하례사. 현종 “경은 매양 정식을 받을 때마다 궁정에 조공하고 소회를 말하니 깊이 칭찬할 만한 일이오...이제 경에게 비단 관복과 금띠 및 오색 비단, 흰 생견을 납해 2천필을 내려 바치는 정성에 보답”, 12월에 또 조공
- 726년 두 번 조공. 한번은 왕의 아우가 조공사.
- 727년 견당신년하례.
- 728년 왕의 아우 김사종이 견당사, 자제들의 국학 입학 허가 청&허락받고, 현종에게 벼슬



받고 숙위:

- 729년 봄, 가을 두 번 조공
- 730년 2월, 10월 두 번 조공. 왕족 지만이 조공사로 가서 벼슬받고 숙위. 오가는 각종 물품 들말, 개, 금, 머리카락, 바다표범<-->비단, 관복).
- 731년 2월 칠년하례사. 현종=벼슬+비단 60필: “우황과 금.은 등의 물품을 보낸 글을 살펴 니...진실로 변방을 지키는 위소요, 참으로 충의의 의표이니, 어찌 이역의 먼 풍속과 한가지로 말할 수 있겠고. 더구나 의리를 사모함이 매우 부지런하여 조공을 더욱 근신하며...” 4월 일본국 병선 3백척이 습격, 쳐부숨
- 733년 7월 발해와 말갈이 등주(=지금의 북한 안변군, 함경남도 최남단)에 쳐들어옴. 현종은 숙위하고 있던 왕족 김사란을 귀국시키고+성덕왕에게 군사를 내어 말갈의 남쪽 변경을 치게 함. 과반수 병사가 죽음. 12월 왕의 조카가 입당사은사.
- 734, 735, 736, 737년 신년하례사. 735년 신년하례시 당 현종, 칙령으로 패강(溟江) 이남의 땅을 성덕왕에게 하사

### 3. 신라본기 제 9

#### (1) 효성왕

-738년 현종 견사, 조위와 책봉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며, 자못 서기書記를 알아 중국과 유사하다.”

#### (2) 경덕왕

-742년 일본국 사신이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현종 견사, 조위, 책립

-이후 747년까지 매년 입당조공. 748년부터 조공기사 사라짐.

-753년 일본국 사신이 왔는데, 거만하고 예의가 없어 왕이 접견하지 않으니 돌아감

-755년 신년하례사. 756년 안록산의 난으로 낙양을 떠나 사천(촉)으로 몽진한 현종을 찾아가 조공, “신라왕이 해마다 조공을 와서 예약과 명분 의리를 실행함”을 기리는 현종의 시. (衣冠知奉禮 忠信識尊儒)

-762,63,65 조공

#### (3) 혜공왕: 여덟살에 즉위, 태후가 대리정무

-즉위 4년차(768)에야 당 대종이 책왕. 왕의 어머니 김씨는 대비로 책봉. 9월에 견사입당조공.

-모반이 잦았음. 결국 780년 왕과 왕비가 살해. 772, 773 조공. 774, 775 년 2회 조공. 776 년 3회 조공.

#### (4) 선덕왕: 모반으로 즉위

-즉위 3년차(782) 입당조공. 즉위 6년(785) 당나라 덕종 책왕.

### 4. 신라본기 제 10

#### (1) 원성왕

-2년(786) 입당조공. 당 덕종의 조서 “신라왕 김경신에게 칙유...나금, 능채 등 서른필과 옷 한 벌, 은술통 한 개를 주니, 이르거든 마땅히 받을 일.” 성덕왕과 현종의 교류를 생각할 때 대접이 형편없이 박함. 조공횟수도 눈에 띄게 감소.

-790년 복국(=발해)에 견사.

-792년 당나라에 사신 보내 미녀 김정란을 바침

#### (2) 소성왕

-원년(799) 아홉 자 되는 인삼을 사신편에 당나라에 보냈으나, 덕종은 받지 않음. 관계썰렁

#### (3) 애장왕: 즉위시 열세살, 숙부 언승이 정사대리

- 798년 원성왕이 죽자 당 덕종이 견사 조위, 소성왕 책명. 그러나 780년 소성왕이 잇달아 죽자 덕종의 사신 돌아감.
- 2년(801년) 탐라국에 견사 조공! ==>국력의 쇠약 방증
- 3년(802) 가짜 왕자를 왜국에 볼모로 보내려 함
- 4년(803) 일본국과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를 맺음==> 당과의 관계 냉각되자 일본과 화친
- 5년(804) 일본국이 사신을 보내와 황금 3백냥을 바침
- 즉위 6년차(805)에야 당의 책봉 받음==>당나라의 정권교체와 유관(덕종이 죽고 즉위한 순종의 권력 다지기 일환)
- 806년 일본국에서 사신이 와서 만남. 당 헌종은 숙위 왕자 귀국시키고 벼슬 하사. 8월에 견사조공.
- 808년 일본국 사신을 왕이 후례대지(厚禮待之). 견당조공.
- 809년 7월 조공, 왕의 숙부 언승이 모반, 왕을 죽이고 왕위 찬탈

#### (4) 헌덕왕

- 원년(809) 당나라에 견사 전왕의 부음을 고함. 헌종은 사신을 보내 조위, 책봉==> 반역자임에도 원년에 책봉한 까닭? 당 헌종 또한 805년 즉위한 직후이고, 국내적으로 환관세력 및 지방절도사 세력 진압에 총력. 대외관계 안정을 위한 전략적 고려로 추측됨.
- 810년 왕자를 당나라에 보내 조공(금 은 불상과 불경:?)
- 812년 북국(=발해)에 사신
- 815년 헌종에 조공.
- 819년 7월 당나라 모반 진압에 파병하라는 칙령을 받고, 군사 3만명 원조
- 820년 당 목종에 조공
- 822년 3월 김헌창의 반란, 12월 조공
- 825년 1월 김헌찰의 아들 모반, 5월에 왕자를 당나라에 보내 조공

- (5) 흥덕왕: 2년(827) 당나라 문종의 조위 견사, 책립==>비교적 조공 많았고 당과의 관계 돈독
- (6) 희강왕(836-838), 민애왕(838-839), 신무왕(839): 신라 왕위계승다툼으로 책봉 못 받음

#### 5. 신라본기 제 11

- (1) 문성왕(839-857): 즉위 2년(840) 당 문종은 숙위와 있던 왕자, 학생 1백여명 일시 귀국=> 나쁜 신호? / 즉위 3년 (841) 당 문종에서 무종으로 바뀌면서 책봉/ 반란이 잦았음
- (2) 현안왕(857-861) 때 교류 없다가, 경문왕(861-875) 때 조공, 책봉, 숙위 회복
- (3) 현강왕(875-886): 878 당 희종 견사책봉. 7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려다가 황소의 난 소식 듣고 그만둠. 8월 일본국 사신 만나봄/ 882년 일본 사신 황금 3백냥과 야광주 열 개

#### 6. 신라본기 제 12

- (1) 경명왕(917-924): 918년 고려 창건, 923, 924년 후당에 조공
- (2) 경애왕(924-927): 924년 고려에 사신을 보내 태조 예방(禮訪)/ 925년 11월 후백제 견훤은 조카를 고려에 볼모로 보냄/ 927년 고려 태조의 후백제 정벌 군사지원, 후당조공, 9월에 견훤이 침노하자 고려 태조에 구원요청, 그러나 견훤이 11월 서울 접수 왕을 자살시킴
- (3) 경순왕(927-935): 933년 후당 명종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책명. 935년 태조에게 항복.

서 숙위할 것을] 명하였다...” 당의 대우도 각별하였음. “문무왕 5년 2월 이찬 문왕이 죽으니 왕자의 예로 장사하였다. 당제는 사신을 보내와 조상하고 겸하여 자의 한번, 요대 한 개, 채능라 1백필, 초 2백필을 보내 주었다.”

- 김부식의 숙위제도 논평. “신라는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조공하는 사신이 끊어지지 않았다. 항상 자제를 보내어 입조숙위(入朝宿衛)케 하고 국학에 들어가 강습케 하였다. 이로써 성현의 풍속과 교화를 이어받아 흥황의 습속을 고쳐 예의의 나라 되었다.”(권12, 경순왕 9년 말미)